

#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 1.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을 주제로 한 APF 화상회의 (Virtual Dialogue) 참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이 인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APF 화상회의에 참여하였다.

APF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회원 국가인권기구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주기적으로 화상회의를 주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장애인권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인도 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주제로 장애인의 정치계 진출 사례를 발표했고, 호주 인권위원회는 장애인고용 및 사회통합 프로젝트 등 장애 차별 완화를 위한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종교 활동을 위한 시설 접근성, 장애인 교육, 정보 접근성 및 고용과 관련한 상황 개선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위의 활동을 공유했다.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법 입법을 위한 노력과 정부, 시민사회와의 협력 활동 등에 대해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도 인권위원회는 시와 인권을 주제로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등을 소개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결정 사례 등을 공유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APF 화상회의의 참여를 통해 위원회의 경험을 지속 공유할 계획이다.

출처: APF 화상회의(Virtual Dialogue)

## 2. 유엔난민기구(UNHCR) 소식

### UNHCR, 코로나19 국제적 대응과 난민 인권에 관한 보고서 작성

유엔난민기구(UNHCR)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시기의 난민 인권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망명 절차로의 접근, 보건, 아동 보호, 성(性) 기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영역에서 난민 인권이 보장된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 시기 일부 국가의 난민 수용 제한 정책, 성(性) 기반 폭력, 교육 불균형, 아동보호, 외국인 혐오증, 백신 보급 문제 등 난민이 겪는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질리언 트릭스 UNHCR 보호 부문 대표는 "(보고서는) 난민 보호를 위한 노력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은 난민 인권을 훼손하는 난민 수용 제한 조치 등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이러한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고서는 국제적 대응의 긍정적인 부분도 언급한다. 보고서는 '난민 글로벌 콤팩트(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의 핵심 원칙인 포용성, 협력, 책임 공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되기도 했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 기간 중, 지역 활동가들이 필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대다수 국가가 난민에 대해 백신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백신 국수주의 (vaccine nationalism)'로 인해 2021년 기준, 세계 난민의 84 퍼센트를 수용하고 있던 중저소득 국가들이 해당 정책 이행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OECD DAC의 수잔나 무어헤드 의장은 보고서에 대해 "시의적절하며 (국제사회가) 가용한 지원 및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협력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위 보고서에 대한 요약본은 UNHC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unhcr.org/asia/news/press/2022/7/62c7de464/global-evaluation-international-covid-19-response-fell-short-upholding.html>

### 3.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 유엔 제50차 인권이사회: 신임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에 엘리자베스 실비아 살몬 가라테 임명

유엔 인권이사회는 7월 8일, 페루 교황청립가톨릭 대학 민주주의 인권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실비아 살몬 가라테(Elizabeth Silvia SALMON Garate) 소장을 차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다.

토마스 키타나 특별보고관의 후임인 살몬 신임 특별보고관은 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년 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특별보고관 임기는 1년씩,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살몬 보고관은 현재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법과대학 정교수로 재직 중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진정 실무그룹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살몬 신임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축하하며 전달한 서신에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인류 공통의 가치를 대변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년간 정부, 학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살몬 특별보고관이 앞으로 북한 인권신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특별보고관 업무 수행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제50차 인권이사회는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개최되어 결의 23건을 채택했다.

출처: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official webpage

### 4. 주요 국제회의 일정

#### ▲ 국제 연합(UN)

일 시	회의 명
6. 13. - 7. 8.	제50차 인권이사회

####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일 시	회의 명
8. 29 - 30	OHCHR 노인인권 이해관계자 협의회

#### ▲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일 시	회의 명
7. 18.	APF 화상회의(APF Virtual Dialogue): 장애인권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이지현 ljh820@nhrc.go.kr